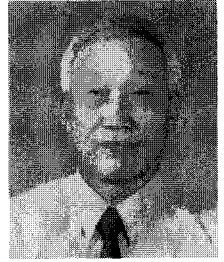


쌀 농사, 지켜질 수 없는가?



강춘성 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들어가는말

쌀 농사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쌀 농사를 살리려고 모아진 중지나 연구결과는 쌀 농사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쌀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누증되는 재고처리와 쌀 농사가 지속되도록 하는 농가소득보장, 이를 위한 국민의 합의(재정의 뒷받침 등)다.

국책기관으로 오랜 연구와 많은 실적을 쌓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정부의 용역을 받아 깊은 연구와 여론을 수렴하여 제시하고 있는 「쌀 농업 종합대책」은 이 세 가지 쟁점사항을 푸는데 미흡하다는 평가다. 노력한 흔적은 많이 보이지만 재고누증, 농가소득, 국민합의라는 세 과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궁여지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쌀 농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쌀은 국방과 같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꼭 있어야하는 대표적인 먹거리요, 문화환경, 국토를 지켜주는 등 다원적 기능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농촌사회를 지탱시키는 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농으로 인한 국가재정부담은 줄여주고 유례없는 수도권 급팽창을 다소나마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기여도가 높음에 이 부분은 과소 평가되고 있다. 생명산업과 농촌사회의 붕괴로 인한 국가나 국민의 재정적 부담은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이다. 쌀 농사를 지키는 것은 농민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혈세를 내는 국민과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지키자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큰 책무다. 노령화사회, 조기퇴직자, 은퇴자의 급증, 많은 여가와 경제적 여유,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등 사회적인 여건 변화는 농촌사회와 농업, 특히 쌀 농사의 소중함을 더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농업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취미요, 여가선용이요, 건강관리이다.

식량 자급도는 30%도 안 되는데...

역대정권의 가장 잘못된 농정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식량의 자급도가 낮아지도록 방치한 것이다. 이는 일찍이 선각자이며 애국자인 윤봉길 의사의 농민독본의 글대로 「생명창고」의 열쇠를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이고, 종 노릇을 해

야하고 끼니도 굶을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급도가 30%도 못 미치는데 주곡인 쌀이 남아야단이니 이 어찌 개탄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남는 작물은 적게 심고 모자라는 작물은 더 심으면 된다. 좁은 국토를 놀리지 말고 대체 작물을 재배하자는 것이다. 대체작물로는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콩이나 사료작물이 적당할 것이며, 쌀 농사와 대체작물과의 소득격차는 남아도는 쌀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부담이면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다.

경쟁력 · 규모화 · 가족농

우리는 쌀뿐만 아니라 농업전체를 경쟁력이란 잣대로 재려고 한다. "규모화가 경쟁력이다"라는 가정 아래 2010년의 전업농의 평균 경작규모가 5ha가 되도록 하여 경쟁한다는 것이다. 경작규모 면에 수출국의 1/10도 안 되는 면적이요, 높은 지대, 인건비, 금리 등과 정부지원액이 수출국과 대비하여 턱없이 낮은데 어떻게 경쟁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에 따라 규모화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는 곳도 있겠지만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과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 기술경쟁과 가족농 중심의 농정방향이 짜여져야 한다. 가족농의 농사는 상품생산 목적보다 자급이요, 생활의 한 부분인 취미요, 여가요, 건강관리 수단이다. 그러므로 생산비는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생산비개념 아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가족농은 생활농업, 취미농업, 건강농업, 보람농업, 환경농업, 전원생활로 표현할 수 있다. 힘들고, 돈벌이가 안되므로 못난 사람이 선택하는 농업이 아니라 즐겁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보람된 삶을 위

해 농촌에서 살고 농사를 짓는다면 농촌도 농업도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농업을 단순히 농산물 생산을 위한 1차 산업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사회안전망의 확보, 환경보전, 국민건강, 여가선용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존립의 안보 및 생명산업으로의 농업농촌에 대한 농정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좁은 국토, 많은 인구, 자연자원이 빈약한 우리 나라 여건에 맞는 농정의 틀을 새롭게 만들자는 것이다.

농업 · 농촌은 국민모두의 것이다.

농업과 농촌은 농민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농업이요, 농촌이다. 그래서 농업 · 농촌은 국민 모두의 것이요, 국가존립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산업이다.

그런데도 농업을 살려야 한다는 농민들의 절규는 농민들만을 위한 목소리로 매도되고 있다. 여론 형성층이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마저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 농업 · 농촌이 설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일반 국민들의 농업 · 농촌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농업 · 농촌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농촌을 사랑하도록 하는데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들의 새로운 욕구를 우리 농업 · 농촌에서 충족시켜준다면 가능할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질 좋은 먹거리 생산, 기꺼이 찾고 또 찾고자하는 아름다운 농촌환경, 인정이 넘치고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소중한 농촌사회가 된다면 국민 모두가 농업 · 농촌을 살리는데 앞장서게 되므로 농민만의 것이 아

닌 국민 모두의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농민만이 아닌 농업계 관련자 모두가 다시 준비하고 시작한다면 될 것이다.

생산농민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고 환경과 생명이 존중되고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는 공간으로 농촌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농민들부터 나만이 아닌 더불어 사는 농촌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농업·농촌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바람직한 이상의 실현이라 하겠다.

쌀 농사! 지킬 수 있다.

쌀 농사를 경쟁논리로서 접근한다면 일찍부터 포기하여야 한다. 충격을 줄여서 연착륙으로 서서히 枯死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농촌·농업, 특히 쌀 농사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농촌·농업이라고 인식되어 국민 모두의 농촌·농업, 쌀 농사로 인식될 때 국민들이 농촌·농업, 쌀농사를 지키는데 앞장 설 것이고, 또한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농촌과 도시, 그리고 농민과 소비자가 따로가 아닌 하나로 인식되어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FOCUS

도·농 상생의 이념하에 더불어 잘 살기운동을 전개할 "도·농 녹색교류연대" 출범

都·農 녹색교류를 통해 도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사회적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잘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실천을 위한 도·농 녹색교류연대("도농연대")는 2002년 3월 29일 오후 5시부터 30일 오전 10시까지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연수원에서 참여단체의 대표 및 실무급 책임자 연석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농 녹색교류연대」를 출범시켰다.

- ◇ 이번 모임은 지난 2001년 11월 9일, 도시와 농촌의 교류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농민 및 시민단체 주관으로 개최한 「도·농 녹색교류 대토론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 도·농 녹색교류를 위한 범국민적 농민 및 시민단체의 연단체 결성을 실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 ◇ 도농연대 워크숍에서는 총 32개 참여단체 중 24개 단체가 참석하여, 도·농 상생 정신에 바탕을 둔 범 국민적 사회캠페인, 토론회와 연구조사활동, 정책개발과 건의, 연대단체간의 공동프로그램개발 및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공동대표로서 이형모(시민의 신문 사장), 강춘성(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안학수(한국양명회장), 최성희(농가주부모임회장), 강위수(농민문학회장), 홍일표(미래가족문화연합회장)를 추대하였다. 도농연대의 연구기구와 실행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차기 공동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